

# 상반기 지구촌 문화 교실 “만족도 높다”

도교육청, 13개 학교 대상 설문 결과 96%가 응답  
유학생 수업 준비 양호...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

유학생 교육기부 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지구촌 문화 교실의 상반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도내 재학 중인 유학생 40명과 함께한 지구촌 문화 교실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주동북초, 양지초, 서신초, 송원초 등 전주 12개교와 이리동남초에서 운영했다.

이에 운영 학교 학생 1,185명 및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PPT 자료·자극 지폐·전통의상·전통악기 활용 등 유학생 수업 준비가 양호했고,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전주서일초 임문영 교사는 “유학생이 직접 자기문화를 소개하고 수업하는 것이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페루 유학생 발칼셀 베라 제랄다는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들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배움으로써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화다양성을 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교권 보호 법률 개정안의 쟁점·과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10회 콜로키움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0일 전주평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10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보고서를 학교 현장에 더욱 빠르고 친밀하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역할도 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이 10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연수를 실시했다.

## “학교 중심 인력 효율화 방안 추진 중”

서거석 교육감,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연수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안 마련할 것”

서거석 교육감이 10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서 교육감은 다져져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가점을 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성공무원은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가인사 시 다져져 가산점도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윤중부, 다문화, 교육복지, 특수학급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학교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학교 중심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IT팀을 꾸려 학교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인력 재배치 내용을 담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안을 올해 말까

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연수에서는 ‘챗GPT를 이용한 업무활용’(정진일 피플웨어 대표)과 K-형질의 변화와 혁신(방진섭 KAIST 행정처장)을 주제로 한 특강도 펼쳐졌다. 서 교육감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3주체로 흔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말하지만, 직원도 교육의 주체”라면서 “학생들을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2023 전력변환기술 오픈캠퍼스 교육... 27일까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IINC3.0사업단(김상진 단장)은 2023년 전력변환기술 오픈캠퍼스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오픈 캠퍼스 실무 강좌는 지난 8월 30일부터 이날 27일까지 총 9일에 걸쳐 네 분야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인 PCB Artwork 실무(OCAD: Allegro) 교육은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346호에서 나인플러스아이티(주) 김희태 선임연구원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이뤄진다. 지난 6일에는 OCAD(Allegro)를 이용한 PCB Artwork로 OrCAD(Allegro) PCB Editor User Interface, Board Outline 생성 및 활용법, Constraints(Design Rule) 설정, Properties 적용법/Color 설정 및 Script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 전북지역 에너지 및 전력변환기술 관련 기업 임직원과 전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어 13일에는 Pad stack 및 Symbol Update, Interactive Manual, Automatic Routing Copper Area, Plane/Crossing, 설계 검사(Stats) 활용법, Gerber File 생성 및 출력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 제안

대입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문항 난이도 하향 등  
대입전형 수시·정시 통합 운영, 전형방법 간소화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절대평가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 전환이다. 내신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출하는 반면, 현행 수능은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해 내신성적과 수능 간 성적 산출방식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국소수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한 초고난도 시험 문제 출제에 따른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능의 난이도 하향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수시와 정시 전형의 통합 운영을 들었다. /정은성 기자

현재 대학입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만의 학교활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파행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능을 11월 초·중순에 시행하고 이후 수시와 정시를 통한 운영에 3학년 2학기 학교활동도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입 전형 방법 간소화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한 완화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정은성 기자

## 중2 학생 학습역량 강화... 도교육청, ‘더 높이 캠프’ 진행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습 습관 및 역량을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8주 동안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지정 장소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역량 더 높이 캠프’를 진행한다. 이 캠프는 자유학기 이후 교과학습

평가가 본격화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학습코칭 전문교사 1명당 10명 이내의 학생을 배정,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총 14차시에 걸쳐 참여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1~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비주얼존 및 소속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배정 학생 수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18일까지 문자로 안내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학생중심 초등교육의 현재와 미래

13~14일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오는 13~14일 이틀간 교내 황학당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해 전북교육의 지난 100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초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중심 초등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스웨덴 황선준 前 스웨덴 국가교육청 정책평가과장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미국 등 세계적인 교수진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교수진들과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전주교대-전북교육청 협력



국제학술대회는 전라북도 초·중등교원과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초등교육연구원 (063-281-7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AI 기술 활용 기록관리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연구과제 수행

전북대 강윤아 박사과정생  
인문사회 연구장려 지원 선정



례를 조사하여 국내 기록관리 기관에 적용할만한 요소를 도출하고, 실제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을 활용해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지능화가 실현되면 업무 과중이 심각한 국내 기록관리 기관에서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과제에 선정된 강윤아 박사과정생은 기록관리학 및 정보기술학 분야의 학회지에 4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5개 이상의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분야 및 AI 분야의 연구과제에 8건 이상 참여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강윤아 박사과정생(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지도교수 오효정)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학문·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향후 국가 발전에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연구 장학 지원사업으로, 연간 2,000만원의 연구지원금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이번 선정으로 강윤아 박사과정생은 ‘AI 기술을 활용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지능화한 국내·외 사



전북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중국 법률 전문가와 주 중국영사관 영사들을 초청해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전북대, 중국 유학생 대상 법령 이해교육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중국 법률 전문가와 주 중국영사관 영사들을 초청해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대에서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유학생회인 전북대학중국학인화자연합회를 통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법과 자국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유학생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전북대중국유학생회는 주 광주중국총영사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앞장서고, 중국유학생회가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주 광주중국총

영사관 주적화 총영사 대행, 경기위영사 등이 참석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국제협력부에서 가진 환담에서 한중 우호 및 교육 협력 강화 방안, 중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대 박성용 국제부처장은 “주 광주중국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법을 위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 광주중국총영사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앞장서고, 중국유학생회가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